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9.3.(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DMZ정책과 (DMZ보전팀)	과 장	박미정 (031-8030-2650)				
		팀 장	임세운 (031-8030-2661)				
		담당자	이시은 (031-8030-266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평화와 생태계’ 미술품 관람하세요

- 8월부터 12월까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미술품 19점 전시
 - 어울림센터 방문객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쉬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
 - 문화소외지역인 연천지역 방문객에게 볼거리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경기도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평화와 생태계’를 주제로 12월까지 미술품 19점을 전시한다.

올해 3월 연천군에 문을 연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디엠지(DMZ) 최북단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의 거점센터로, 커뮤니티 공간·전시·홍보관·교육장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DMZ OPEN 페스티벌 전시’의 하나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방문객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쉬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방문객에게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작품은 ‘평화와 생태계’ 주제로 ‘아트경기’ 작가인 강가연, 김규학, 이상엽, 이은주, 전진경, 조태광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어울림센터 1층 로비 및 전시홍보관, 2층 복도에 총 19점이 게시돼 있다.

작품들은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고 이상향을 꿈꾸는 모습’, ‘한적한 시골 속 고향의 기억’ 등 다양한 테마로 전시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소외지역인 연천지역 방문객에게 볼거리 및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미정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도민들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DMZ 최북단 도보길인 평화누리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현재 연천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는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코스 중 미라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다.